

전례와 선교의 활성화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_053)250-3048~9_http://www.daegujobo.or.kr



† 오늘의 전례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요한 2,13-22 참조)

성전은 이 지상에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머무시는 곳을 말합니다.

미사성체를 통해 참 성전
이신 예수님의 몸을 이루
고 또 감실 안에 성체를 모
시고 있는 성당은 그러므
로 성전입니다. 같은 성체
를 받아 모시고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된 우리 속에
도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시
고, 우리 삶 안에서 예수님
의 이름으로 희생과 봉헌
이 바쳐지므로 우리도 성
전입니다.

아시시 성녀 글라라 성당
사진 _ 홍창익 비오 신부

제1독서 예제 47,1-2.8-9.12

제2독서 1코린 3,9㉔-11.16-17

복 음 요한 2,13-22

입 당 송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을 나는 보았네.

화 답 송 강물이 줄기줄기 하느님의 도성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거처를 즐겁게 하네.

영성체송 너희는 영적인 집을 짓는 살아 있는 돌이니, 거룩한 사제단이 되어라.



김준년 베드로 신부 | 군위본당 주임

“이 성전을 허물어라”

세례 받은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의 몸의 지체이다. 우리 각자는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고 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당도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참된 성전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우리들이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허물고 싶어 하는 성전은 유대인들이 아끼던 아름다운 건물이었다. 왜 예수님께서서 유대인들이 아끼던 성전을 없애라고 하셨는가? 예배드리기 위하여 성전이 필요하지 않음을 모르시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예수님은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것이다. 참된 성전은 당신의 몸이라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사십육 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다. 우리들도 성전을 건축한다. 길게는 5년 짧게는 2년이면 성전을 짓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허물라고 하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건물이 아니다. 우리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것들을 허물라는 것이다. 바벨탑을 없애라고 하신 것이다. 비록 사십육 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라면 과감하게 없애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성전을 없애기 위하여 당신께서 먼저 첫 삼을 드신다.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탁자들을 엮어 버리셨다.” 성전의 상인들은 성전이 하느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그들은 헛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빌붙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나 헛된 성전을 지을 수 있다. 욕심이 잉태한 것을 성전이라고 떠받든다. 사제의 첫 마음은 누구나 겸손하였고 소박하였다. 어찌다가 권력과 명예와 부를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사십육 년이라는 세월이 흐를 수도 있다. 잘못된 건물을 지은 것이다. 그것을 허물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사흘

안에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당신의 몸을 우리 안에 건설하기 위하여 반드시 헛된 건물을 허물어야 한다. 욕심이 잉태한 잘못된 건물이다. 당신이 지으신 건물에 생명의 샘이 있다. 그 샘은 우리를 정화시키고 양육한다. 우리는 볼 수 있는 성전을 통하여 볼 수 없는 성전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예제키엘 예언자가 말한다.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우글거리며 살아난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고기도 아주 많이 생겨난다.” 예수님의 능방에서 생명수가 흐른다. 예수님만이 성전을 정화시킬 수 있으시고 다시 지을 수 있으시다. 교회를 쇠신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구조적 악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 악의 뿌리에는 각 개인의 악이 자리 잡고 있다. 교회를 쇠신하기 위하여 각자의 쇠신이 필요하다.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빙산의 끝을 자르는 것에 그치고 말 것이며, 투쟁과 미움을 양산하게 할 것이며 그 빙산의 끝은 다시 자라게 될 것이다. 쇠신을 원하는 이는 그 최초의 동기가 어디에서 출발한 것인지 면밀히 살펴보자. 주님이신가, 아니면 무질서한 나의 걱정과 욕심이냐? 다시 사제의 첫 마음으로, 세례 받을 때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쇠신된 사제, 다시 돌아온 신자가 되어야 한다. 골프채를 휘두르면서 주님 다시 큰 본당으로, 다시 큰 직책을 하고 청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곳, 힘들게 사는 이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겸손함과 가난함의 은총을 허락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때이다.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신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사흘 안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다. 두려워 말고 허물라. 나머지는 주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내가 허물어야 할 성전은 있는지 살펴보자. **필독**

믿음의 길

죄의 시초

정혜옥 데레사 | 계산본당

오래 전에 읽은 글이 생각난다. 술에 대한 글이었다. 메피스트로 변장한 간악한 악마가 착실하고 선량한 청년 곁으로 다가갔다. “젊은이여 그대는 살인을 할 수 있겠는가?”하고 물었다. 청년은 얼굴이 파랗게 질리며 대답하였다. “사람을 죽이다니요, 그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어찌 그런 무서운 것을 물어보십니까?” 하였다. “그러면 도둑질은 할 수 있겠지.” “아니, 물건을 훔치다니요, 나의 두 손목을 없앤다 해도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오, 너는 참으로 훌륭한 젊은이로군. 그런데 거짓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메피스트는 다시 물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해도 나는 죽어도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양심을 속일 수 없습니다.” 메피스트가 말하였다. “참으로 보기 드문 청년이로군, 너는 나의 시험에서 승리하였다. 승리의 기념으로 축배를 들자.” 진홍빛 술이 청년의 잔에 채워졌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청년은 혼자 미소하였다. 자신의 승리를, 그리고 잊을 수 없었다. 달콤하고 향기롭던 붉은 술의 감미로운 맛을. 그 한 잔의 술은 그를 유혹하기 시작하였다. 혼자 술집을 드나들었다. 한 잔만 하던 것이 석잔으로, 잠깐만 하던 것이 밤을 지새우게 되었다. 아들의 밤 외출을 궁금해 하는 부모님에게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어떤 때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간다고 거짓을 말하며 어머니에게서 돈을 타 내었다. 술값이 떨어지면 집안의 돈을 훔치고 아버지의 주머니를 뒤졌다. 도둑질의 시초가 되었다. 어느 한 밤중 아버지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는 순간 “오, 그동안 나의 돈을 훔친 도둑놈을 잡았다. 어떤 놈이냐. 불을 켜고 얼굴을 보아야겠다.”

순간 청년은 저도 모르게 아버지의 입을 막고 목을 눌렀다. 그때 허공에서 울려오는 차디찬 소리, “술 한 잔, 그렇다. 나는 이 술 한 잔으로 인간에게 어떤 죄악도 저지르게 할 수 있으리라.” 음흉하고 잔인한 악마의 소리가 들려왔다.

텔레비전에 자주 술이 등장한다. 연속극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화가 나고 가슴이 답답할 때마다 술을 꺼내어 들이킨다.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온다. 그것을 보고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어른들은 화가 날 때마다 술을 마시는구나. 술을 마시면 화도 풀리고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구나.” 하며 앞으로 곤경이 닥치면, 지혜로운 생각으로 해결하지 않고 술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영국 속담에 “첫째 술잔은 갈증을 낮게 하고 둘째 술잔은 영양이 되고 셋째 잔은 유쾌한 기분을 준다. 그러나 네 번째 잔은 사람을 미치광이로 만든다.”고 하였다. 이태백은 “칼로 물을 베면 다시 물은 흘러가고 잔을 들어 술을 마시면 근심은 더욱 깊어진다.”고 하였다. 어제 새벽 미사 때, 성당 문전에 기대어 있는 젊은 청년을 보았다. 술기가 아직 남아있는 청년은 혼자 비실비실 웃고 있었다. 폐인의 모습이다. 성당 문 앞에서 밤을 새 청년의 행위가 궁금해진다. 그의 의식 속에 아직 남아있는 하느님을 찾아 술 취한 몸을 휘청거리며 성당으로 왔을까, 아니면 아직도 그의 눈에는 하느님의 존재가 몽롱하게 흔들리고 있을까. 고향지르고, 구토 질 하고 마침내 의식불명이 되는 우리의 음주 문화, 두렵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시선이, 어디에선가 노려보고 있을 메피스트의 차디찬 미소가. 죄의 시초는 이렇게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 악마의 유혹은 나날이 간악해지고 있다. **필로**



이달의 성인

교회와 나라를 구한 베드로의 후계자

성 대 레오 1세 교황 학자(재위 440~461년, 축일 11월 10일)



교회 역사 안에서 교황으로서는 처음으로 ‘대(大)교황’이라 불리게 된 성 대 레오 1세 교황님께서서는 위대한 행정가, 신앙의 보존자, 고대 교회의 초석을 놓은 교황

양 선서를 요구하셨으며 로마에 들어온 마니교 이단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위(位)가 둘이며 성모는 천주의 모친이 아니라고 하는 이단과 예수님의 인성(人性)을 부인하는 단성론의 이단을 물리치셨는데 이를 위해 칼체돈 공의회를 소집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人性)과 신성(神性)의 두 본성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지니셨다’는 가르침을 선언하고 확고하게 하셨습니다.

님으로 요약됩니다.

440년 성 식스토 3세 교황님의 뒤를 이어 제45대 교황님으로 추대되신 성인께서는 로마 제국의 정치적, 사회적 불안과 교회 내의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신학적, 사목적, 정치적인 문제점들을 훌륭하게 해결해 내신 분이십니다.

성인께서는 훈족의 침공으로 로마가 위기에 빠졌을 때 적군의 왕을 직접 만나 담판, 설득시켜 물러가게 함으로써 멸망 직전의 로마를 구하셨으며 반달족이 침범하였을 때에도 기도와 성덕의 힘으로 로마를 약탈과 방화와 살육에서 구출하셨습니다.

또한 성인께서는 교회 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단 사설을 막고 신자와 성직자들의 성화와 교회 일치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원죄와 유아 세례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영성체를 금하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기 전에 명백한 신

성인께서는 재위기간동안 무엇보다 교황의 수위권을 강조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석인 베드로 사도에게 당신의 수위권을 주셨고, 교황은 바로 그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이므로 변함없이 계속되는 교회안의 수위권을 가진 모든 주교들의 으뜸이자 교회 일치의 표지라는 신념으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단들을 물리쳐 교황권을 확립하셨습니다.

사목자로서, 스승으로서 눈부신 활동을 펼치신 성인께서는 173편의 서간들과 96편의 강론들을 남기셨습니다. 공식 문헌적 성격을 띠고 있는 이 서간과 강론은 라틴문학사 안에서도 중요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황으로서는 최초로 성 베드로 대성당 지하묘지에 안장되신 성인께서는 1754년에 베네딕토 14세 교황님에 의해 교회학자로 선포되었습니다. **가톨릭**

이 사람을 아시나요? - 이름난 가톨릭 신자들

고통 없이 영광은 없다!

1968년 미국 워싱턴 주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짐 카비젤은 리버 피닉스 주연의 <아이 다호>에 출연하면서 영화계에 데뷔했습니다. 눈에 띄는 역할은 아니었지만 작품성 있는 영화에 출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매우 만족스러워 했고, 이후에도 작은 배역이었지만 평단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작품들에 출연하며 영화 이력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2004년 멜 깁슨 감독의 문제작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 그리스도 역을 맡으며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그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의 나이와 같은 33세 되던 해에 예수님 역으로 캐스팅 되었고 자신의 이름 이니셜 J·C와 Jesus Christ의 이니셜이 같은 걸 발견하고 자신의 캐스팅이 우연이 아닌걸 알게 되었다 합니다.

이 영화가 만들어지는 동안 짐 카비젤 역시 많은 육체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매를 맞는 장면에서 우연한 사고를 겪어 등에 14인치나 되는 상처를 입어야 했습니다. 또한 십자가



를 지고 가는 동안 어깨가 탈골되었으며 골고다에서는 번갯불로 인해 진짜로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는 거의 숨을 쉴 수가 없었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촬영할 때는 혼자서만 5주일이나 씨름해야 했습니다.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 육체적인 고통을 감내하며 촬영에 임했다는 그는 영화를 다 찍고 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모두들 부활은 원하지만 고통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통없이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까? 영화를 찍는 내내 계속 묵상하고 기도했죠. 진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금주의 성인

11월 9일	성 베니노(주교, 아일랜드, 467년), 성녀 소파트라(동정녀, 7세기경) 성 테오도로(군인, 순교자, 아마세아, 319년경)
11월 10일	성녀 님파(동정 순교자), 성 레오 1세(교황, 교회학자, 461년), 성 트리폰(동정 순교자) 성 레스피치오(순교자), 성 안드레아 아벨리노(신부, 1521~1608년)
11월 11일	성 마르티노(주교, 투르, 316~397년), 성 멘나(군인, 순교자, 이집트, 303년) 성 바르톨로메오(수도원장, 그로타페라타, 1055년)
11월 12일	성 닐로(저술가, 안키라, 430년), 성 마카르(주교, 애버딘, 6세기경) 성 에밀리야노 쿠콜라토(신부, 은수자, 574년), 성 쿠니베르토(주교, 쾰른, 663년) 성 요사팍 쿤체빅(대주교, 순교자, 폴로츠크, 1580~1623년), 성 쿠미아노(수도원장, 590~665년)
11월 13일	성 니콜라오 1세(교황, 867년), 성녀 막셀렌다(동정 순교자, 코드리, 670년경) 성 브리시오(주교, 투르, 444년), 성 아르카디오(순교자, 437년) 성 아보(수도원장, 플뢰리, 945~1004년), 성녀 엔나타(동정 순교자, 297년)
11월 14일	성 두브리치오(수도승, 주교 란다프, 545년경), 성 라우렌시오 오톨(주교, 더블린, 1128~1180년) 성녀 베네란다(동정 순교자, 갈리아, 2세기경), 성 베네란도(순교자, 트루아, 275년) 성 세라피온(순교자, 알제, 1240년), 성 필로메노(순교자)
11월 15일	성 레오폴도(왕, 오스트리아, 1075~1136년), 성 말로(주교, 브르타뉴, 621년) 성 알베르토(주교, 교회학자, 1200~1280년)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11월 10일 월요일은 (故) 박춘택 베드로 신부님 선종 9주기입니다.

■ 2014년 신룡성당 국화축제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10월 24일(금) 김천 신룡성당 국화축제를 참관하시고 오후 7시 30분 미사를 봉헌하셨다.

■ 2014년 교구 사제총회 및 위령미사



대주교님께서는 11월 4일(화) 오전 10시 교구청 성직자 묘지에서 위령미사를 봉헌하시고 남산동 대신학원 대강당에서 열린 교구 사제총회에서 2015년 사목교서를 발표하셨다.

대구대교구민을 위한 신앙생활의 든든한 동반자!

2015년 신앙다이어리 출시

지난 해 첫 선을 보여 큰 호응을 얻은

신앙다이어리의 2015년도 판을 출시합니다.

판매가: 10,000원

선주문 예약판매: 예약기간 내 선주문 시 10% 할인(9,000원)

예약기간: 2014년 11월 3일~11월 21일

예약주문 및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053)250-3047~9

판매처: 교구 문화홍보실, 계산서원, 성바오로서원, 성바오로딸서원, 바티카노, 삼덕성당 임마꼴라따 성물방



체상근심은 싸악 몰아내고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1월 10일(월) 11:00 월성성당	성요셉 아버지학교 월례미사	11월 10일(월) 20:00 교구청 대건관2층 가정사목담당사무실
경주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11월 10일(월) 11:00 황성성당	3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11월 15일(토) 10:00 월성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1월 10일(월) 11:00 신평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11월 15일(토) 11:00 성모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1월 10일(월) 11:00 죽도성당	평화미사	11월 15일(토) 15:00 프란치스코눔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1월 10일(월) 11:30 범어성당		

성소 | 피정

앗숨(Ad sum) 기도 모임

일시: 매주(화) 19:30~21:00

장소: 예수성심시녀회(대구)

대상: 미혼 여성 누구나

신청: (010)2649-2045

서울 삼성산성지 11월 2박 3일 대피정

기간: 11.14(금) 18:00~16(일) 15:00

문의: (010)3310-8826 / (02)874-6346

예수성심전교수녀회 <마음의길> 기도모임

일시: 11.16(일) 14:00, 상동성당

대상: 35세 이하 미혼 여성

문의: (010)9330-3104

성령봉사회 11월 피정

1박 2일 피정, 신청: (054)954-0951

기간: 11.22(토) 14:30~23(일) 17:00

1일 치유 대피정(이성역 신부)

일시: 11.15(토) 14:00~18:00

장소: 대구성령봉사회관(평리동)

수도자들과 함께 하는 성탄 전례 피정

기간: 12.23(화) 16:00~25(목) 13:30

장소: 성베네딕도 왜관피정의집 / 14만 원

농협 301-0087-0776-61, 베네딕도수도원
문의: (054)971-0722 입금 후 연락

교육 | 모집

요셉발 건강회(발은 제2의 심장)

발을 보면 우리의 건강이 보인다.

누구나 알기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법

일시: 매주 토 14:00~16:00, 가톨릭문화관

문의: 476-7774 / (010)3817-5255

<http://www.footfather.com>

오순절평화의마를 철야기도회

시간: 매주 화 23:00~익일 4:00

버스운행: 현대미래몰앞 20:30

수성구청 21:30

문의: 김명옥, (010)5529-3186

2015 전기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생 모집

접수기간: 11.3(월)~14(금)

분야: 일반, 교육, 특수대학원

문의: 850-3583(일반), 850-3505(교육),

660-5512~3(특수)

<http://www.cu.ac.kr>

한국외방선교수녀회 땅끝 모임

일시: 11.16(일) 14:00, 부산 본원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문의: (010)9319-1690

2015가톨릭교리신학원(통신)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11.10(월)~2015.2.6(금)

과목: 신·구약, 신학일반(전례학 등)

대상: 평신도, 수도자

문의: (02)745-8339

홈페이지: <http://ci.catholic.ac.kr>

2015년 해외선교사를 위한 교육

21차: 1.19(월)~2.13(금)

대상: 해외 파견 명령을 받은 선교사

주최: 해외선교사교육협의회

문의: (02)953-0613

김길수 사도요한 교수와 함께 하는 순례

제목: 주옥 같은 일본 성지 순례

장소: 히라도, 나가사키, 운젠

제목: 눈물나는 순교영성의 중국 성지순례

장소: 상해, 소주(주문모, 김대진, 최양업)

문의: 성모승천수도회, (010)4239-1929

제주도 관광 안내

가족, 효도, 단체관광 및 성지안내차량,

호텔, 펜션예약가능

문의: 제주기사사도회, (010)4566-6476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656-9911
010-2008-2329

에이 통증의학과
비수술적 치료전문
· 목 / 허리 디스크 / 협착증
· 이명 / 어지럼증 / 두통
· 오심구 / 어깨통증 · 무릎 관절통
통증의학전문/원장 이준석(이나시요)
-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외래교수 -
TEL : (053)742-8275
범어네거리 / 지하철 2호선 범어역 1번 출구 앞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성가정 결혼
053)474-0025, 011-818-0818
가톨릭 문화관 2층
남대구 우체국 옆, 교대역 3번 출구
권중문(파비올라)

해아림한의원
소아클리닉 - 틱, ADHD, 아노
마음클리닉 - 공황, 불안, 불면
원장 김 대 역(안드레아)
예약 : 053)751-0071 2호선 수성구청역
4번출구 승원학원옆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 서 속 내 과
건강보험공단검진, 무료암검진
위·대장내시경·용종절제술
한번에 편안하게!!
당뇨·고혈압
소화기·내시경 원장/전문의 김영섭(베드로)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7번출구

유방·갑상선 전문 의사가
Maria Breast Clinic
마리아유외과
대표원장 김 경 경(안젤라)
반월당역 22번 출구 농협 3층
(주차 가능함니다)
예약전화 053)252-6875

전통한복의 명가 대한민국 한복명장
이명자 한복방
· 혼수/예단/수의 · 한산모시 전문점
중구 반월당 삼정그린코아 상가 115호
☎ (053)421-2827/421-2828
이명자(세실리아), 강윤정(아네스)

Rex Diamond
대구갤러리
예물, 천연보석, 다이아몬드, 순금바
(목주반지·핸드메이드 디자인 가능)
대표 임 미 순(마리아)
동아백화점 본점에서 사치방향 사이
(맞은편 통일주차장 무료)
☎053)428-7989 | 010-4439-9991
교우님들께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11월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11.16(일) 14:00

1~3대리구: 남산동 대신학원

4대리구: 성동성당, 죽도성당

5대리구: 5대리구청, 평화성당

행사 | 모임

11월 가나 강좌

일시: 11.16(일) 9:30~17:30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의대 마리아관

참가비: 2만 원, 당일접수(무료주차)

문의: 641-5678 / (010)8853-7458

칠곡, 평화의 누릿길(예술과 함께하는 토요여장: 작은음악회 등)

출발: 11.15 / 11.22 / 11.29 / 12.6

9:00 계산성당. 버스아동 / 2만 원(중식제공)

장소: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가실성당 외

문의: 칠곡군/대구PBC, 251-2610

11월 화요기획_고리 콘서트

일시: 매주 화 20:00~21:00(5천 원)

장소: 아트센터고리(남산동신학교전 200m)

내용: 한국가곡(11.4), 7080콘서트(11.11)

푸코와 가브리엘(11.18), 포크(11.25)

문의: 대구가톨릭생활성가협회, (010)9577-7819

교육 | 모집

고3 및 수험생을 위한 피정

기간: 11.29(토)~30(일) 1박 2일

장소: 청통수련원

주제: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

참가비: 3만 5천 원 / 신청마감: 11.19(수)

문의: 교구 청소년국, 250-3065

지성인을 위한 토요 신앙 특강

일시: 11.15(토) 10:00, 남산동신학대학

주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강사: 엄철호(요한) 신부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영남지역 제10차 CPE 세미나

일시: 11.16(일) 9:30~16:00

장소: 대신학원 대강당(남산동)

주제: 내면의 아이 치유와 영적돌봄

주최: 대구대교구 CPE·성바로 CPE 센터

문의: 659-3410 / (010)4143-5508

2015학년도 효성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전형기간: 11.17(월)~21(금) 9:00~16:30

지원자격: 2008.1.1~12.31사이

출생한 아동

방법: 컴퓨터 추첨 / 문의: 720-5500

http://www.dg-hyoseong.es.kr

채용 | 안내

현풍성당 사무장 채용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최종학

력졸업증명서, 본당신부님추천서, 운전가능자

마감: 11.19(수)까지, 문의: 615-2221

교구 법원 공시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김은아(아네스)

문의: 253-9550

2015년 대구주보 광고 신청 안내

2015년도 대구주보에 게재될 광고는 순번추첨방식을 통해 접수되며 기존 1,2차 순번추첨 외 위임신청제를 도입합니다. (대기 번호표는 없음)

- 사전서류접수 기간: 11.10(월)~20(목),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
- 1차 순번추첨 일시: 11.24(일) 9:00, 장소: 교구청 별관 1층 대회합실
- 2차 순번추첨 일시: 11.24(일) 13:00 (당일에 서류를 제출하신 업체 대상)

제출서류: 1. 교적 사본 2. 본당신부님 추천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광고문안 5. 사회복지 관련 사업체인 경우 추가로

교구 사회복지국장 신부님 추천서

광고비는 전액 계좌이체로만 받습니다. (접수일부터 익일까지)

사업주가 담당자이거나 신자들의 유익을 해치는 업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임신청제란?

접수 당일 광고주들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류 제출 후 광고 자리 배정을 문화홍보실에 일임하는 제도로 접수 당일 광고 신청 배정 후 남은 자리에 배정됩니다.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7~9)

대구안과 이진

백내장, 노안, 근시교정 수술

원장 이호성(아오스당), 조영수(다미아노)

대구시 남구 월배로 468(대명동)

(구)달성군청자리

☎(053)651-2233

신랑각시 결혼정보

전문직 · 초혼 · 재혼 · 만혼

서울 사무실 흥대 앞

이 원 교(요안나) | 20년 경력

(053)471-0707 · 016-817-8888

http://www.sk1004.co.kr

남구 봉곡동 영대병원 사거리

KC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홈케어 무료서비스

무료전화 080-053-1000

이옥수(아네스) 010-5048-7739

국가자격 장례 지도사

국비지원계좌제 및 일반반 모집

▶ 취업준비생 ▶ 퇴직준비하시는 분

▶ 창업하실분 ▶ 남녀,나이,학력 제한없음

※ 무시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대경장례지도사교육원

(경상북도 지정 제4호)

☎ 053)813-7006

이시우 신경

http://적추외과 외과

척추내시경, 현미경레이저, 디스크수술
(척추수술 5,000례 시술)

☎ 652-0119 원장 이시우(사도요한)

내당역 3번 출구 앞 반고개에 위치

대구웨딩홀
www.dgweddingmail.com

- 대구 최대규모 웨딩박람회 전시장
- 대구 전지역 예식장 상담 및 혜택
- 웨딩드레스, 스튜디오 촬영
- 혼수 촬영

매월 착한 대구웨딩박람회 개최

문의 053-425-8216 최창열 박람회 010-9687-0500

일본 성지순례 & 문화탐방

나가사키, 운젠, 구마모토, 야소 (4일)

※ 출발일 - 12월 03일, 17일
- 01월 05일

T. (053)253-3399

조 힐 래(유스티노)
(주)성지여행 홈 미 회(안젤라)

박의현 구내내과 의원

서정희 피부과
Dermatologist Dr. Suh

피부질환, 레이저, 스킨케어, 보톡스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 256-6700 서정희(카타리나)
☎ 252-1785 박의현(안드레아)